



1

## 버메스터의 신작 '페이즈3' 디지털 음원까지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기술 강국' 독일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이자 포르세, 부가티, 메르세데스-벤츠의 카 오디오로도 유명한 버메스터가 신작을 발표했다. 디지털 음원까지 풍성한 사운드로 들려주는 '페이즈Phase 3'가 그 주인공이다.

독일의 경제·경영 전문 매체인 <비르차프츠 보헤Wirtschafts Woche>에서는 매년 <독일 최고 럭셔리 브랜드>를 발표한다. 오디오, 시계, 주방, 가전 등 전 분야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는데 버메스터는 매년 3~4위권을 놓치지 않는다. 올해 순위는 3위. 그 뒤로 포르세와 불탑, 크로노스위스 등이 자리했다. 1위와 2위에는 럭셔리 시계 브랜드 아 랑에 운트 쾨네 A.Lange & Sohne와 글라슈테 오리지널Glashutte Original이 꼽혔다. 오디오 기기를 감싼 은빛 크롬 마감의 단정하면서도 깨끗한 느낌을 주는 버메스터는 독일 하이엔드 오디오의 기준을 제시한 브랜드로 평가 받는다. 창립자는 프로 기타리스트로도 활동한 디터 버메스터Dieter Burmester. 'Art for the Ear'를 모토로 기술적으로는 물론 디자인적으로도 탁월한 제품을 선보인다. 국내에 버메스터를 소개하는 ODE 매종의 김

지수 카운슬러는 "버메스터는 업계 최초로 풀 밸런스 회로를 선택한 브랜드다. 기본 신호인 '+'와 '-' 외에도 불필요한 잡음을 모아서 격리하는 그라운드 신호를 추가해 깨끗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이런 시스템은 레코딩업계나 방송업계에서만 사용하던 것으로 홈 오디오 시스템에 적용한 것은 버메스터가 처음이다. 미세한 흔들림을 최대한 억제해 CD 플레이어를 좀 더 안정적으로 구동하는 벨트 드라이브 방식을 채택하는 데서도 버메스터가 가장 빨랐다"라고 말했다. 최상의 부품만 사용해 내구성이 높은 것도 버메스터의 장점이다. 스피커를 포함한 모든 부품을 베를린 공장에서 자체 생산하며 스피커 케이블과 내부 배선재 등을 같은 재질로 사용해 어떤 음악이던 안정적이고 통일성이 느껴지는 사운드로 들려준다.

### Art for the Ear

버메스터는 또 한 번의 진화를 준비 중이다. 약 2년간의 준비 끝에 선보이는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올인원 시스템, '페이즈 3'가 그 핵심. 디지털 올인원 리시버와 스피커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CD 구동은 물론 타이달Tidal 같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음악, 휴대폰에 저장한 음원의 리핑ripping(디지털 형식의 음성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는 일)까지 가능해 다양한 기기에 저장한 음악을 언제든 고음질로 들을 수 있다. '페이즈 3' 홍보를 위해 내한한 버메스터 CEO 마리엔 버메스터 Marianne Burmester는 "FM 튜너나 인터넷 라디오까지 지원하는 혁신적 시스템으로 '디지털 라이프'에 익숙한 사람들도 한층 편리하고 즐겁게 음악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창립자 디터 버메스터의 아내인 그녀는 지난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로 버메스터를 이끌고 있다. "조만간 포르세 측에서 CEO를 영입할 예정이다. 버메스터는 포르세와 메르세데스-벤츠, 부가티가 선택한 카 오디오 시스템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큰 혼돈 없이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사선으로 살짝 눌려진 디자인도 눈에 띄는데 이는 귀와 음파의 높이를 맞추기 위한 것. "남편이 가장 신경을 쓴 것이 귀에 편안하게 와 닿는 음악이었다. 스피커의 위치가 귀를 기준으로 높거나 낮으면 완벽한 청음 환경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바닥부터 귀까지의 높이와 스피커의 높이를 줄자로 잰 정도였다. '페이즈 3'는 이런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쓴 모델로 앉은 상태에서 귀의 높이와 스피커 트위터의 높이를 맞췄다." 모델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레트로 스타일과 로프트 스타일. 전자는 바우하우스 학교에서 만든 가구처럼 '건축적'인 느낌을 주고, 후자는 좀 더 남성적이고 강렬한 분위기다. 버메스터의 모든 제품은 하이엔드 오디오 편집 출신 ODE 매종에서 만날 수 있다.

글 정성갑기자 | 취재 협조 ODE 매종(612-4091)



2

1 페이즈 3 홍보를 위해 한국을 찾은 버메스터의 CEO 마리엔 버메스터는 디지털 음원 유저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페이즈 3'의 강점이라고 했다. 2 원목과 은빛 크롬의 조화가 아름다운 B100 스피커. 3 강렬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주는 '페이즈 3'의 로프트 스타일.



3